

마음수련



Life and Culture



Julian Opie
〈Walking in Sinsa-dong 1〉
Vinyl on wooden stretcher
220×233.6cm. 2014.



Julian Opie
〈Walking in Sinsa-dong 2〉
Vinyl on wooden stretcher
220×233.6cm. 2014.

아무 거리에서나 잠시 멈춰 지나가는 군중들을 바라보라.
이 걸어가는 인물들에게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.
각각의 인물들은 자신의 목적에 휩싸여 있으며,
자신만의 방식으로 옷차림을 연출하면서도,
낯선 이들과 뒤섞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작위적인 춤을 창조해낸다.

특히 서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은
주로 검은색, 회색 옷을 입어 우중충하고 그림자가 많은 런던 사람들과 달리
그림자가 없고 옷 색깔이 다양하며 모자 등 액세서리가 많다.
다들 옷을 잘 입고 각각의 캐릭터가 독특한 차림새여서
마치 비주얼 룩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도 하는 느낌이었다.

- 줄리안 오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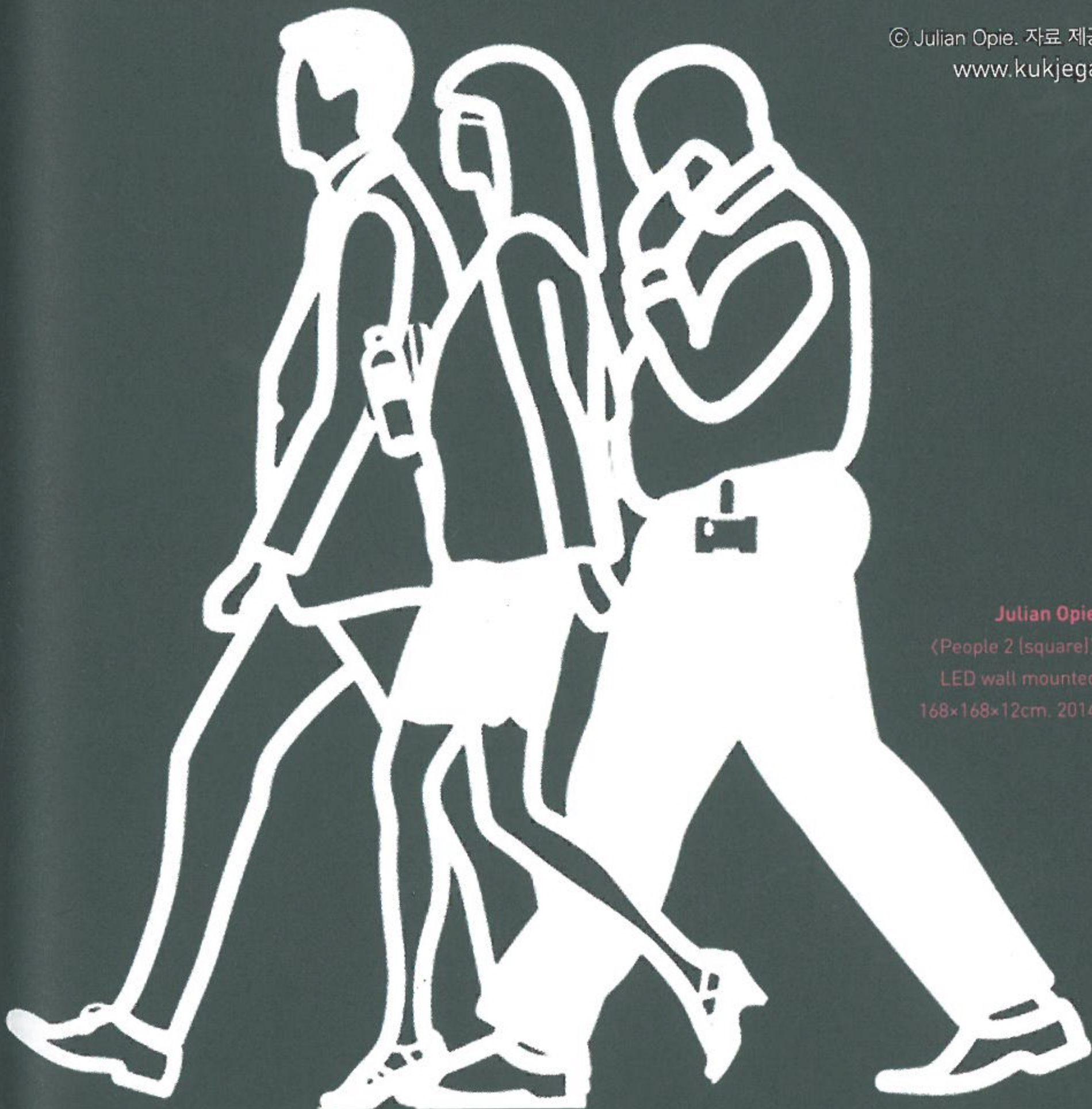
Julian Opie
〈Walking in Sadang-dong in the rain〉
Vinyl on wooden stretcher
230×344.3cm. 2014.



Julian Opie
 <Walking in Sinsa-dong 3>
 Vinyl on wooden stretcher
 220x233.6cm. 2014.

후기 모더니즘 작가, 영국의 줄리안 오피 (Julian Opie, 1958~)가 국내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.(2. 13~3. 23, 국제갤러리) 이번 전시에는 런던의 보행자를 담은 LED 패널, 초상화, 대형 조각들뿐 아니라, 서울의 보행자들을 다룬 비닐 페인팅 등 새로운 회화 연작도 선보인다. 비닐 페인팅은 사진을 바탕으로 한 화면 위에 물감 대신 다양한 색깔의 비닐테이프를 붙여 완성하는 것. 사진가가 서울 신사동, 사당동에서 촬영해 보낸 3,000여 컷 중 작가의 마음에 다가온 사진을 골라 작업했다.

© Julian Opie. 자료 제공 국제갤러리
www.kukjegallery.com



Julian Opie
 <People 2 (square)>
 LED wall mounted
 168x168x12cm. 2014.